



5면

'전주대장간 여는 날' 갖고 힘찬 출발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음 6월 19일) 제355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확정 전북대 - 범지역 협력 '성과'

대학·지자체·연구소  
기업·정치권까지 나서

건립비 등 444억 지원받아  
지방비 포함 총 612억 확보

차세대 반도체 패터닝  
초격자 기술 선도 '비전'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범지역 협력으로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를 성공했다.

이에 따르면 23일 교육부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심 대학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권역별 연구소를 지정해 공유 체계 마련을 목표로 올해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공모한 결과 전북대와 강원대 등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대와 충북대, 강원대 등 3개 대학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이에 전북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 완주군 등 지자체와 자동차융합기술원, KFE(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반도체 장비 진흥화연구단, KIST 전북분원 등 유관 연구기관, 그리고 동우하이텍, 한솔케미칼 등 범지역적으로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반도체 관련 기업체 등 모두 43곳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를 염원하는 기자회견을 별도로 개최하는 등 확실한 지원을 했고, 최근 전북대 구성원들 역시 유치를 기원하는 한마음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정몽영 의원이 이 과정에서 양 오봉 총장과 직접 산자부104교육부를 찾아 전북대 반도체물성연구소 및 공정연구센터의 랩 시설 등을 적극 알렸다. 또 전북대가 지난해 반도체 특성

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만큼 반도체사업 육성의 핵심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철규 산자위원장을 만나는 등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번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를 통해 전북대는 공동연구소 건립비 164억과 장비비 280억원 등 모두 444억원을 지원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 63억원, 전주시 30억원, 완주군 15억원, 전북대 자체 투입 50억원 등 158억원의 대응자금을 포함 총 612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주기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방형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을 통한 실무형 교육 인프라를 제공한다.

차세대 반도체 패터닝 초격자 기술 선도 교육 중점 연구소를 비전으로 이 분야 즉응형 실무 인재양성과, 재직자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연구소도 만든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있어 필요한 3대 핵심공정(노광/식각/박막)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현재 확보돼 있는 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3D 패터닝공정 분야를 특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기존 반도체공정연구센터 증개축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800㎡ 규모의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건립하고, 내부에 핵심공정 특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한 랩 안

전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또한 분석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디바이스실, 실습실, XR기반 스마트 공정 실습실 등을 배치해 지역 전체의 반도체 교육과 연구의 핵심 메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우하이텍과 한솔케미칼, OCI, KCC 등 반도체 소재·케미칼 분야 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역 내 첨단 특화분야인 미래모빌리티, 스마트팜산업, 기술융합형 오가노이드, 방위산업 분야를 이끌 실리콘 기반의 스마트센서 반도체 인재양성 기관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387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 분야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반도체소부장), 30여년 동안 화합물 반도체 특화 대학연구소로 자리매김한 반도체물성연구소, 호남지역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랩,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글로벌 대학30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병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전북대가 관학 협력의 힘으로 유치한 사례로,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최고의 인재양성이 가능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 정몽영 의원과 전북 국회의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잘 활용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 사업 선정으로 전북도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북대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통해 인재양성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23일 남원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전북자치도 백년대계, 남원시와 함께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김관영 도지사, 시군 방문 - 남원

도민과의 대화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등 현안 논의  
노인복지관 방문 체험 프로그램 참여·공설시장 상인 격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남원시를 방문해 시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 남원시를 방문한 것으로, 남원시의회를 방문해 김영태 의장 및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언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분위기와 여론을 경청했다.

이어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북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은 희망이 담긴 노래와 각기 다른 14개의 꽃송이를 김 도지사에게 전

달했는데, 이는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았다는 뜻이었다.

또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합과우 일원 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 △에코에너지스마트팜 거점단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관련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완화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피어나는 남원'이라는 피켓을 들고 전북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남원시와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했다.

이후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김 지사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 양궁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김 지사의 모습에 어르신들의 현장 반응도 뜨거웠다.

이어 공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환을 들으며 격려한 뒤, 남원시 사회단체장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피어나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으로 원대한 계획 수립에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남원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솔한 의견들이 시정과 도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고창

고창군 GOCHANG COUNTY

구시포 쌍둥이등대